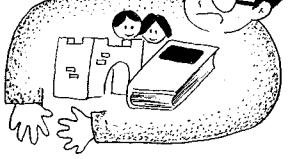
캠퍼스필—새내기에게 주는 글

대학, 두발로 당당히 설 준비기간

안영수
〈문리대 교수·영문학〉

학문의 바다 헤쳐나갈 '돛' 만들어야

인생의 황금기…자율·자유 만끽



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셔주는 월요일 아침. 본주한 마음이 된다. 신입생들과의 첫만남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선보러 가는 색시처럼 마음이 설레고 새로운 단남에 대한 기대 또한 처음 교단에 섰던 때나 같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빨리 사귈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백지를 한 음음 가지고 옷매무새를 고치며 강의실에 들어선다. 여든 개의 눈동자들이 일제히 쏠려온다. 호기심과 기대가 엇갈리는 눈빛들이다. 내 소개를 하고 백지를 나누어 주었다. 자기소개를 영어로 써내라는 주문과 함께. 당황하는 듯했으나 금세 사각거리며 서투르게 쓰기 시작하는 그들을 차근차근히 지켜본다. 대학에 오기까지 저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성가실 만큼의 간섭속에 병보고 나가 병보며 귀가하는 몇년동안의 입시지옥에서 살아남은 저들에게 무언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한사람씩 자신이 쓴 글을 읽혔다. 가끔씩 와하는 탄성들을 했다. 아직 낯선 친구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까닭이기려서도.

오랜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갈래 길이 숲속에 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지요"라고.

그렇다. 나는 우리대학에 온 새내기들이 곧날 학교와 전공을 잘 선택했었노라는 고백을 듣고 싶다. 대학과 전공을 점수대에 맞추어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권유에 마지못해 따랐다가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을 만날 때는 안타깝다. 그런 학생들은 친구도 못사귀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자퇴하거나 군입대라는 탈출구를 택한다. 이런 학생들은 많은 것을 상실한다. 자신감과 소속감 뿐만 아니라 한시적인 젊음의 황금기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새내기들이 학교와 자기 전공에 대해 무엇보다도 자부심과 애정을 갖기를 바란다.

두번째, 대부분의 새내기들의 생활패턴이 지금까지는 타율적이었을 것이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짜주신 시간표와 계획에 득목히 순종하면 모범생 또는 효자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활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대학이 처음에는 혼란과 무질서의 온상처럼 보일런지 모른다. 첫날 강의실을 못찾아 헤매는 신입생들의 얼굴에서 불안과 곤혹의 그림자를 본다.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내기들은 이제부터 타율의 옷가미를 과감히 벗고 자율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대학은 수강과목, 노트정리, 과제 물준비, 동아리 선정 등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해내야 한다.

세번째,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한두 자녀 기르는 가정이 늘어난 까닭인지 세월이 갈수록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극히 피하고, 교우관계도 처음부터 제한하고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이 전문분야 종사자를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대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대학출신이라고 특수 신분을 보장받거나 우대받는 시대는 지났다. 학문연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친구들 사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출신지, 가정환경, 성격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한 곳이 대학사회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와 내 문제를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친구는 없다. 특히 지방에서 전학한 학생들의 적응기간이 길고 힘들어한다. 음식과 잠자리가 불편할 뿐더러 외로움이 지나게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무력감에 시달린다.

새내기들이여, 먼저 가슴을 열어라. 짝꿍 하나나 둘이서 오손도손하던 유치한(?) 사춘기에서 벗어나 대학의 모든 학우가 내 친구 혹은 연인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먼저 겸춘의 치열한 열정을 죽인다. 문제의 심각성은 본인의 자각증상이 없다는 데 있다. 몇년전 가장 우수하다는 학생들로 구성된 모과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는데 일학기 말에 엄평가까이 파락을 하게 되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물리 이유를 물었더니 영어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꽤갈피도 펴기 싫었고 선배들 말이 일학년 때는 놀아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들을 이런 상태로까지 몰고간 데는 이 나라의 입시제도가 주요 원인이지만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풍토가 정말 암적이다. 부모님들마저 대학에 가면 관심의 끈을 놓아버리고 때가 되면 책상 앞에 앉으리라고 해방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들을 관대하게 보아준다.

이런 태도로 대학생활을 시작한다면 머지않아 자포자기에 빠질 것이다. 학문의 세계는 바다라는 이미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지표도 없는 망망대해일 뿐이다. 이 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으로 스스로를 지탱하여 줄 돛을 만들고 밧줄을 꼬아야 한다. 그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다. OX와 단답에 길들여진 두뇌로 밤새우는 독서와 사색을 통한 학문자세를 터득하는 것은 젊음의 열정을 온통 바쳐야 가능하다. A학점 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된다. 언제나 성적평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비참한 자세는 자기가 택한 전공에 미적듯이 빠져들어야 한다. 교수들의 제한된 시간내의 설명은 그 분야의 안내지도일 따름이다. 그 지도를 갖고 보이지 않는 보물을 찾는 것은 각자의 노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지금 그대들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단생 처음 자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험한 세파에 두발로 당당히 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꼬은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도 용납되고 치기도 애교로 보아주는 인생의 연습장이다. 그러니 가슴을 활짝 펴고 거침없는 자세로 공부도, 친구도, 동아리 활동도 최대한 즐기기를 바란다. 새내기들 만세!

영화평

100만 지성인에게 바친다—카프카

영화 '카프카'는 '백만 지성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 '침묵하는 지성을 깨우는 충격'이라는 화려하고 요란한 수식어를 달고 대학내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일반 상업영화였다. 영화를 본 여러 사람의 말처럼 이 영화는 강렬하고 충격적인 영상을 대담하게 사용한 실험성 짙은 문제작임엔 틀림없다.

좋은 영화는 감동을 준다.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 감동은 삶의 진실에서 비롯된다. 영화 '카프카'엔 감동이 없다. 있다면 그것은 고도의 세련된 기교에서 오는 단순한 감탄일 뿐이다. 마치 잘 짜여진 칸딘스키의 추상화를 대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 속엔 차가움만 있을 뿐이지 불의 뜨거움이나 치열한 장인의식은 들어있지 않다. 스물 넷이라는 약관의 나이에 캄트를 정복한 스티븐 소더버그(Steven Sodurberg)에게 마흔 한살의 짧고도 긴 생애 동안 끊임없이 개인의 실존적 문제를 고민하다가 끝내 폐결핵으로 요절한 한 유태인 작가의 정신세계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 소더버그는 아마 카프카를 읽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읽은 것은 절망과 혼돈에 싸여 나아갈 길을 잃고 헤매이는 세기말 젊은 지식인의 자화상일 따름이다. 그 사회상은 폭력과 광기로 얼룩진 20세기 현대사의 상처뿐인 뒤안길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개인은 한없이 무기력하고 그 개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단지 세계를 구성하는 일부일 뿐이다. 그 거대한 세계에서 내면적 자아가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이며 그러한 침묵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카프카는 괴롭게 고백하고 만다. 그의 자조적 독백은 바로 이 시대의 한계이고 자아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한계이다. 카프카가 살았던 포화가 멈춘 1차대전 후의 황폐한 프라하의 거리는 현재의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것은 1994년의 서울의 봄과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절망하는 이최들을 위하여 그러나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새장이 마침내 새를 잦으러 나섰다. 거대 라라 희망이 모일 때까지".

(카프카의 일기 가운데)

자아가 건재할 유일한 길은 침묵

현대 지성인의 절망·혼돈 그려

최 창 근
〈국문·3〉

문화원 탐방

일본문화 바르게 알아야 문화교류된다

②일본문화원

문화원 탐방 시리즈 두번째로 국립국악원에 이어 일본문화원을 소개한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내리면 바로 일본문화원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내 설치된 각 문화원들은 각국의 상호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도서실, 유학상담실 운영 및 영화상영, 어학교육 등을 실시하며 전시실 등을 마련하여 각종 형태로 문화적 교류를 시도한다.

일본 문화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실 '실크갤러리'에서는 사진전, 공예전, 서예전 등 한일교류전이나 양국 작가에 의한 전시회도 개최되며 일본유학이나 일본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한국예술인에게도 개방된다. 영화는 한달에 한편이 상영되고 있는데 일어와 영어 자막이 나와 이해를 돕고 있다.

기자가 문화원에 들어서면서 유난히 할아버지들이 많아서 의아해 했는데 일본문화원을 찾는 노인들은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으신 분들로 일본영화를 보거나 도서관을 이용하러 오신다고 한다.

한일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198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은 1992년 5월 현재 1만1천5백96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다. 양국 자매도시 체결 역시 급격히 증가해 1988년 9월 체결된 서울시와 동경시의 자매결연을 비롯해서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관계를 맺는 등 활발한 문화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다이나믹한 젊은 예술가와 비나나, 활짝 개방하는 일본인 정권교대를 소재로 했다

◇세태를 반영하는 일본인

근래 젊은 세대의 문화 속에서 옷차림 뿐 아니라 일본가요, 비디오, 만화 등 많은 부분들이 왜색화 되어가고 있다. 일본문화 개방이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본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일본문화의 바른 수용자세를 갖춘 뒤 일본문화를 접한다면 본래의 문화교류적 의미는 더욱 뜻깊을 것이다.

3월 일본문화원 일정 △전시회=감소연의 '청심한화지인형전(淸心韓和紙人形展)' 3월 16일~23일 △영화상영=일본작가 松岡錠司 감독·작본의 '물장구치는 금붕어' 월~금요일(3월 18일 상영없음) 2시, 7시.

□ 문의전화:765-3011~2

〈진지현 記者〉

문화단신

봄맞은 연극계, 풍성한 볼거리 제공

극단 세실, '불…' 공연

극단 세실은 '불의 가면-권력의 형식'을 오는 31일까지 연장 공연한다.

'독재청학과 이성의 대결 구조'라는 소제목이 시사하듯이 권력에의 사악한 의지가 나약한 선보다 현세적으로 지배해온 사회구조 속에 배운자들과 권력자들의 관념적 갈등을 힘있게 그려내고 있다.

3월 31일까지 4시, 7시, 압구정동 실험극장(515-7661~2)

국립극단, '이성계…' 공연

국립극단은 제158회 정기공연으로 이근삼 작, 김도훈 연출의 '이성계의 부동산'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우리나라 연극계의 산증인인 원로배우 김동원의 은퇴무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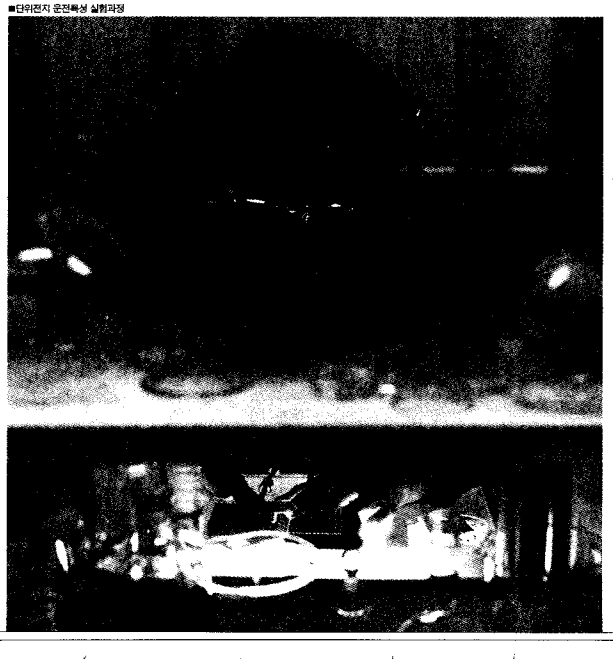
〈재산상속 문제로 불생에 휘말려 사이비 종교인이 경영하는 복지원으로 파선해 온 한 노인이 '이성계' 행세를 하는데…〉

환상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기혹한 현실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도피처는 환상세계일 뿐이며, 이 환상 세계 역시 본인의 마음에 따라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3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단 소극장, 평일 7시30분/토·일 4시.

21세기 에너지-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NEW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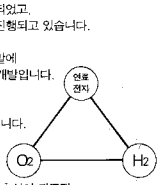
■단위전지 운전특성 실험과정



"무공해 에너지는 과연 존재할까?"

인류 최초로 달에 첫발을 내 딛는데 성공한 아폴로 우주선,
우주시대의 서막을 올린 그 전기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연료전지였습니다.
연료전지는 1802년 영국의 데비스경에 의해 고안되어 아폴로 우주선에 이용되었고,
1960년대부터 상업용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미국, 일본등지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961년 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에너지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의 한 프로젝트가 '연료전지발전' 에 대한 연구개발입니다.
연료전지발전이란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전기와 물 그리고
열을 얻을 수 있는, 전력사업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이 가장 큰 발전 방식으로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공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완전한 무공해 에너지는 없을까?
지희 한국전력 기술연구원 전력연구팀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품질 좋은 무공해 에너지를 개발하여 국민 경제와 국가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연구팀
책임연구원 이 창 우
선임연구원 임 희 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공사